무안에 '국민 여가 갯벌캠핑장' 들어선다

향후 2년간 국비 10억 들여 조성
생태갯벌센터 연계 관광자원 기대

무안에 갯벌캠핑장이 생긴다. 생태갯벌센터와 함께 무안지역의 갯벌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무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은 26일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2014년 국민여가 캠핑장 신규사업'으로 무안 갯벌캠핑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란 최근 유행하는 웰빙과 힐링 캠프의 추세에 맞춰 가족 중심의 건전한 레저문화 보급과 친환경적인 여행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신청해 전국 31개 지자체와 함께 1·2차 심사를 거쳤다. 지난해 말 이뤄진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3차 현지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으로 2년간 국비 10억원과 군비를 투입해 국민 여가 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캠핑장이 조성되면 생태갯벌센터와 함께 오토 캠핑장, 갯벌 캐러반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서남해안 최고의 캠핑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

무안생태갯벌센터는 3277㎡ 면적에 전시관, 영상관, 갯벌연구소, 학습실 등이, 갯벌 오토 캠핑장은 8920㎡ 면적에 캐러반 10대를 비롯해 야영장, 족구장, 개수대 등이 각각 조성돼 있다.

무안의 갯벌생태공원에 설치된 오토캠핑장과 캐러반은 지난 2012년 11월에 개장했으며, 지난해 갯벌 캐러반 이용객은 1만2000여명에, 1억9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군 생태갯벌센터 관계자는 "무안갯벌 캠핑장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무안~광주 고속도로, 최근 개통된 김대중 대교 등을 통해 대도시와 접근성이 좋다"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현장에서 다양한 갯벌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해 자연 친화적인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완도경찰, 생활안전협 간담회

완도경찰서(총경 나원오)는 26일 "지난 23일 오전 완도호텔에서 2014년 생활안전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서 관계자와 각 지역 생활안전협의회장 및 총무 등 총 24명이 참석해 완도의 치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회원들로부터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완도경찰은 회원들에게 주요 업무 추진 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특히 마을방범을 위해 설치한 CCTV가 각종 범죄예방 및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완도경찰은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완도군 관계자에게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겨울가뭄 극심 도서 신안, 비상급수 공급

신안군이 겨울철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소규모 낙도를 대상으로 비상 급수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26일 "최근 겨울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도서식수 실태파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도초면 우이도 등 4개면 7개 도서 177세대 324명에게 행정선을 이용해 생수 2000병(4t)을 우선 지급했다.

앞으로 겨울가뭄이 지속될 경우 현재 보유중인 예비식수(생수) 2만병으로 점차 급수지역을 확대해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민의 식수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소규모 낙도에 식수난 해결을 위해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을 실시, 15개 도서에 518억원을 투자했다.

군 관계자는 "도서낙도의 식수 공급을 위해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의 공정을 최대한 앞당겨 도서민의 생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가뭄 도서지역 생수 지급 신안군이 겨울철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도초면 우이도 등 7개 도서 177세대에 식수를 공급했다. 군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 급수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고품질 마늘 우량 종구 생산 구축

신안군-식량과학원 협약

신안군은 26일 "지난 22일 고품질 마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와 마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서 마늘 생장점배양 기술을 이전받아 마늘 우량 종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마늘 조직배양 무균 우량종구 실증재배와 현장 적용 실증시험에 대해 지원하고,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는 마늘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 종구생산 기술개발과 신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신안군은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와 생장점 배양 우량종구 대량생산 기술과 난지형 마늘 무병종구 특성유지 기술 등 세부 재배기술을 공유해 마늘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신안군 마늘 재배면적은 1200여ha로서 고품질 마늘을 생산하고 종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아를 이용한 고품질 마늘생산 단지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무균 우량종구 사용 시 일반종구 보다 수확량이 28~40% 늘어 마늘 재배 농가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완도 해조류박람회 영남기업 힘 보탠다

郡- 경북 경산산단업체 지원협약 체결

경북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 기업체들이 오는 4월 열리는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26일 "경북 경산산업단지에서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해조류 박람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과 완도 우수특산품 직거래장터 개설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370만㎡로 완도농공단지의 10배 규모인 경산산업단지에는 370개 업체, 1만5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주요 업종은 기계, 조립금속,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으로 연매출 3조8000억원이다.

업무 협약식에서 경산산업단지 임원, 16개 업체 등에서 박람회 입장권 4000장을 구입했다.

연매출 1조원대 중견기업인 아진산업은 완도산 해조류를 회사 구내식당 음식재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박람회 기간 완도에서 기업 연수 및 투어도 할 계획이다.

군은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등 60개 기관사회단체와 협약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훈련기관 등 174곳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가동

여수고용청, 동부권 취업률 높이기 안간힘

여수고용노동지청(양수승 지청장)이 전남 동부권 취업률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여수고용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순천고용센터에서 지역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비용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여수고용청 관할 지역(전남 동부권) 5820명이 직업훈련을 이수, 이 중 102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여수고용청은 지속적인 성과달성을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 내 45개 훈련기관, 129개 직업훈련과정을 승인 받아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양수승 지청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청과 직업훈련기관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고용률 높이기에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보성, 고향 방문길 차밭 빛축제 들리기 홍보

보성군은 26일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을 향우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보성차밭 빛 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축제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차밭 빛 축제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다. 차밭 일대에 120만개의 화려한 LED전구와 조명을 사용해 높이 150m, 폭 130m 크기의 차밭 대형트리를 설치하고 소망카드 행사와 일일 점등식과 문화공연을 펼치는 등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 3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등 겨울철 낭만을 즐기고 있으며, 관계공무원과 운영요원 10여명이 매일 축제장에 상주하면서 상황실과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농어민 위한 신규 정책 발굴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업무보고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박광호)는 26일 "지난 23일 지사대회의실에서 지사 직원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지사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행윤 전남지역본부장은 박광호 지사장으로부터 2014년 각 부별 중점추진사항과 운영방안 및 현안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성장동력 사업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농지은행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가 경영정상화 ▲업무분야별 목표 부여 및 책임전담제 운영 ▲창의적 업무 실현이 가능한 조직문화 개선 ▲현장중심 고객만족활동 강화 등이다.

박광호 지사장은 "지역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어민을 위한 정책발굴과 실현을 위해 도전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소통해 나가겠다"며 "직원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2014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지사는 나주시 수리답 면적의 86.3%인 1만2586ha의 수혜면적과 저수지 164개소, 양배수장 83개소, 용배수로 2819km를 관리해오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목포시, 150명에 생계형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지역공동체 다음달 4일까지 신청

목포시가 다음달 4일까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5억8900여만원을 투입, 150명에게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가구 1인 참여 원칙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공무원 가족은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3월3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청년층은 주40시간, 65세 미만은 주26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이고 시간당 5210원이 지급된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지원 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등 4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청년층 9명과 장년층 71명 등 80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특화 자원활용형 및 취업지원형, 지역인프라 개선형, 생활안정 지원형 등 3개 유형 10개 사업으로 70명을 모집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백운산 야생동물 먹이주기 광양제철소(소장 백승관) 직원 70여명이 지난 25일 백운산을 찾아 한파로 먹이가 부족한 매, 수달, 수리부엉이 등 조수와 파충류, 곤충류 등을 위해 고구마와 잡곡, 사료를 동물 이동로에 놓아줬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발견된 올가미를 제거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도 펼쳤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 새얼굴

"시민 눈높이 치안 펼치겠다"

우 형 호 순천경찰서장

"치안과 법질서가 바로서는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신임 우형호(56) 순천경찰서장은 시민 눈높이 치안을 펼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 서장은 "시민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문제와 답을 찾고 있다" 며 "법질서가 바로서는 순천을 만드는데 노력하는 것은 물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건강한 조직을 만 들 자 " 고 강조했다.

우 서장은 광양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주청 홍보담당관, 광양경찰서장, 광주청 청문감사담당관, 광주 남부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